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최근 '인디음악(Indie Music)'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디음악은 보통 상업적인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음악을 일컫는다. 인디음악에서 Indie는 독립이라는 Independent를 축약한 단어다. 인디밴드는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음악 시장에서 상업성에 구애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자본 투자를 받지 않으며 국내 음악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글 김지현 객원기자 jihyunsports@mtn.co.kr



밴드 설의 멤버, 설호승, 이한빈, 김도연, 오명석(왼쪽부터)

인디밴드의 높은 음악 수준에 대중들이 호감을 가지며, '혁오'와 '데이브레이크' 같은 많은 인디밴드가 '스타밴드'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인디음악이 대중성을 확보하자, 인디밴드 시장에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해마다 국내 인디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콘테스트를 열어, 이들을 소개하고 상금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호에 소개할 인디밴드 '설(說)'은 '2018 EBS 올해의 헬로루키 with KOCCA'에서 우수상과 '2018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탄 실력파 밴드다. 소속 멤버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말하는 밴드 설과 설의 음악, 포부 등을 들어봤다.

THIS IS SURL

밴드 설은 1998년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밴드다. 리더 설호승은 보컬과 기타, 이한빈은 베이스, 오명석은 드럼, 김도연이 기타를 맡고 있다. 설은 멤버 이한빈이 리더 설호승에게 밴드를 결성하자고 연락하며 시작됐다. 둘이 밴드를 결성한 뒤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만난 오명석에 밴드 합류를 제의했다. 오명석과 함께 연주 합을 맞춰본 이들은 멤버 한 명이 추가되면 소리가 더 꽉 채워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새로운 멤버 발굴에 나섰고, 마지막 멤버인 도연을 만났다.

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음악의 색을 만들기 시작했다. 설호승은 “연주를 계속 하다보면 우리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을 수 있다”며 “음악의 분위기에서부터 합주 방식까지 모두 시험과정을 거친 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옷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설이 추구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 설호승은 “우리 음악을 딱 구분 짓고 싶진 않다”며 “설이 곧 장르”라고 패기 있게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모두 브리티시 락을 좋아해서 우리 음악에 브리티시 락이 자연스레 녹아 있을 수 있다”고 보충했다. 설의 소속사 ‘해피로봇 레코드’



인디밴드 '설(說)'은 '2018 EBS 올해의 헬로루키 with KOCCA'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설의 음악은 브리티시 락과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음악이다.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한 음악

설에 대한 특징은 밴드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설은 한자 '말씀 설(說)'을 따서 지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밴드라는 의미다. 밴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멤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와 연관된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호승은 “밴드 이름을 지으려고 모였을 때,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 지부터 정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밴드가 되고 싶어서 '스토리', 즉 이야기와 연관된 단어를 찾았고, 최종적으로 한자 설(說)로 밴드 이름을 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많은 인디밴드들이 그렇듯 설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했다. 밴드 설은 현 소속사인 해피로봇 레코드와 올해 1월에 계약하며 나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소속사 없이 활동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소속사가 없다 보니 합주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멤버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 시적으로 합주 공간을 구해서 연습을 이어갔다.

이한빈은 “초기에는 호승이의 1평 남짓한 연습실에서 할 때가 있었다”며 “그렇지 못한 날에는 다른 멤버들이 연습실을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멤버들끼리 합주비를 걷어 연습실을 대여하며 이를 해결해갔다.



밴드 설은 여러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이한빈은 “하루에 합주비만으로 5만 원 가량을 썼다”며 “1년 동안 지불한 합주 연습실 대여비를 생각하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동을 이어가려면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이들은 외부에서 공연을 하거나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가하는 전략을 세웠다.

김도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대회에 최대한 참가하려고 노력했다”며 “이 중에서도 헬로루키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해서 참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는 지인의 추천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며 “이 외에도 많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인디밴드에 더 많은 지원을”

밴드 설은 ‘2018 EBS 올해의 헬로루키 with KOCCA’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8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밴드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얻은 큰 수확이다.

큰 대회 입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린 설은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다. 밴드 ‘데이브레이크’를 비롯해 ‘노리플라이’, ‘소란’ 등 평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뮤지션들이 속해 있는 ‘해피로봇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회 입상은 소속사를 얻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줬을 뿐 아니라 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특히 헬로루키 프로그램 수상을 통해 설은 처음으로 밴드 활동 멘토링을 받았다. 덕분에 전보다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한빈은 “대회에 입상하면서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지원비, 합주실 지원비, 멘토링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지원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와 같은 인디밴드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며 “더 많은 대회와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설호승도 “합주실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역을 다양하게 늘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밴드 설은 자신들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명석은 “생각보다 주위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 음악이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리더 설호승은 “사람들과 우리는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래를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자신들의 바람을 밝혔다.

INTERVIEW

밴드를 시작하기 전에 즐겨 들던 음악은.

설호승 : 브리티시 음악 요소가 들어간 건 거의 다 좋아했다. 특히 영국 얼터너티브 락 밴드인 콜드플레이 노래를 즐겨 들었다.
김도연 : 영국 락 밴드 레드제플린을 좋아했다. 이후에는 고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로파이 음악도 즐겨 듣는다.
오명석 : 동서양의 느낌이 같이 담긴 퓨전음악을 좋아했다.
이한빈 : 팝을 좋아했다.

밴드를 알리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

이한빈 : 요즘에는 SNS가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주 영상을 SNS에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홍보하고 있다.
설호승 :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팬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든 스티커를 나눠줬다. 팀 로고를 넣은 스티커인데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설 노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설호승 : ‘Cilla(실라)’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뚜렷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멜로디 라인도 마음에 든다. 독자들이 꼭 들어보면 좋겠다.
오명석 : ‘9지하철’이다. 합주공연을 위해 지하철을 타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아무래도 드러머다 보니 드럼 연주가 돋보이는 곡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 곡이 그렇다.
이한빈 : ‘눈’이다. 노래에 담긴 스토리 라인이 아주 좋다. 힘들 때 많이 듣는 노래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한다.
김도연 : ‘데드맨’이다. 인상 깊은 멜로디나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기타 리프’가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곡은.

설호승 : ‘여기에 있지’. 우리 노래 중 가장 쉽게 즐기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이한빈 : ‘The lights behind you’란 곡도 소개하고 싶다. 선한 곡이다. 설 노래 중 새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이 곡을 들어보길 권한다.



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설호승 : 우리 노래가 여러분께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한빈 : 외로움이든 힘듦이든 아픈 감정들을 우리와 공유하면 좋겠다. 직접 공연에 참여해 공유하면 더 좋을 거 같다.

밴드 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설호승 :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김도연 : 수다쟁이.

설의 목표는 무엇인가.

설호승 : 단기적인 목표로는 최대한 빨리 단독콘서트를 열고 싶다. 사람들이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김도연 : 세계적인 페스티벌인 영국의 글라스톤베리 무대에 서고 싶다.
오명석 :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밴드가 되고 싶다.
이한빈 :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고 싶다. 최종 목표로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